

신문배달하며 고학...국세청 '9급 성공신화' 일귀



박요주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장 인생 스토리 화제

고교 졸업후 세무공무원 첫발...부이사관으로 명퇴 "공직시절 받은 사랑 지역사회 공헌으로 돌려줄 것"

“학창생활을 어렵게 보냈지만, 주변의 사랑과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의 대표 학교인 광주일고의 총동창회장으로서 모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취임한 박요주(70) 제30대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장은 “동문들이 서로 소식을 전하고 만나고, 그러다보면 소통하고 단합하고, 그리고 돕고 나누는 일의 중계역할을 하는 게 동창회”라며 “이를 통해 모교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가 취임한 날, 최창우(35회) 동문이 1억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해 힘을 보탤다. 박 회장은 “1920년 개교한 광주일고는 선배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광복과 민주화를 이룬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후배들이 자랑스런 전통을 계승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지낸 박 회장은 9급 말단에서 부이사관(3급)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공직사회에서 '9급 성공신화'의 모델이 됐다. 특히, 그의 어려웠던 학창생활은 지금

도 회자되고 있다.

보성 출생인 그는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탓에 또래들보다 4년이나 늦게 초등학교를 다녔다. “위로 형이 둘 계셨는데 6·25전쟁에 휘말려 모두 사고를 당했고 집안은 풍비박산났어요. 어렵게 가르쳤던 아들이 사고를 당하자 아버지는 환멸을 느껴 저를 학교에 보내지않으셨죠. ‘모르는 게 마유 편하다’는 자조였어요.”

하지만 그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다. 친구들이 돌아주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때를 썼다. 1년만 학교에 보내달라고. 가가스로 허락을 받은 그는 친구들보다 4년 늦은 14살에 초등 3학년에 편입했다. 학업과 농사를 겸했던 그는 농민기 때문에 한 달씩 결석을 해야 했다. 그래도 성적은 전교 1등이었다. 소 꼴을 먹이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노력의 결과였다. 그것이 밑거름이 돼 ‘광주서중’에 진학하게 됐다. 당시 담임선생과 친구 아버지의 도움이 컸다.

“친구 아버지가 쌀 5되만 가지고 광주에 시험 치러 가자고 했어요. 똑똑한 아들을 시골에 묵이지 말라고 아버지를 설득해줬죠. 그 분이 없었다면 광주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박 회장은 어렵사리 치른 중학시험

에 당당히 합격했다. 라디오에서 합격 수험번호가 흘러나오자 눈물이 앞카를 닦고 회상했다. 하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집안 형편 탓에 진학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결단을 했다. 쌀 다섯가마니 값인 8800원을 돌려주며 ‘광주서중’에 등록하라고 한 것이다. 등록금만 들고 올라온 그는 학비를 벌며 학교를 다녔다. 전남일보(옛 광주일보) 신문배달은 물론 가정교사 생활도 했다. 배우고 공부해야 할 시기에 되려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니 성적은 군두박질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사회선생님이 공무원원을 권했다. 고3 여름방학 때 2주간 특강도 열었다. 그리고 세무직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다.

하지만 대학의 꿈을 버릴 수는 없었다. 망설이고 있는데 주변에서 “(세무공무원으로) 1년만 보면 대학 4년을 편히 다닐 수 있다”는 꼬드김에 공직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39년, 세무공무원은 천직이 됐다. 1969년 9급 말단으로 국세청에 입문해 정읍세무서장·북광주세무서장·서광주세무서장·광주청 세관관리국장·조사1국장까지 오른 뒤 명예퇴직했다.

박 회장은 “명예퇴직엔 아쉬움도 있었지만, 공직생활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봉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광주일고 총동창회장과 내내내 국제로타리 3710지구(광주와 전남 서남부) 총재로 지역에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선악인 김홍빈씨 '빛고을홍보대사' 위촉

열손가락 절단이라는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정상에 도전 중인 광주 출신 선악인 김홍빈씨가 광주시 빛고을홍보대사에 위촉됐다.

김 씨는 앞으로 2년간 광주시 빛고을홍보대사로서 광주 알리기에 적극 나서게 된다.

김 씨는 지난 20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광주시 빛고을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2015년은 빛고을을 광주가 세계로, 미래로 당당히 나아가고 열린 광주로 도약하는 해인 만큼 도시 홍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중 열번째 등정을 목표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 주관하고 김 씨가 원장대장을 맡은 로체원정대 발대식 행사도 열렸다.

로체 원정은 김 씨가 장애의 어려움과 편견을 이겨내고 가서 브롬 II, 시사팜마, 에베레스트, 마칼루, 다울라기리, 초오유, K2, 칸젠중가, 마나슬루에 이어 8000m급을 열 번째 도전하는 것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전남대병원, 국립대병원장 회의 개최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림·암출 맨원쪽)이 주관한 2015년 2차 국립대병원장 회의가 최근 광주에서 열렸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광주지역 한 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강원대·경북대·경상대·서울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전국 국립대병원의 병원장들과 더불어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참석해 국립대병원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쳐졌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2014년도 진료실적 및 결산 현황 ▲전문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 ▲임상시험연구비 책정현황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발전방향 등이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자부심을 갖고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석수 실장은 “지금까지 국립대병원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잘 해오고 있듯이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에 더욱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장회의를 주관한 윤택림 병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의료계가 직면한 각종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임일도 동강대 교수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 재위촉



동강대학교 경찰경호학부 임일도 교수가 최근 광주시로부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돼 2016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또 임 교수는 광주 동구청 클린행정위원회의 위원을 맡아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조직 활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과 시민방위 교육 소양강사, 시공무원연수원강사, 시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강사, 광주북부경찰서 집회 및 시위 자문위원, 광주시 지방행정심판위원회 등을 역임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뛰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광섭 호남대 교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위촉



호남대 행정학과 전광섭 교수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전 교수는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시·도에서 주관하는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의 2013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부문, 18개 지표, 62개 항목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한다. 공기업들은 경영실적에 따라 기관장의 등급을 최고등급인 '가' 등급에서 '마' 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지역 특산품 있고 난타공연 있는

지난 21일 개장한 영산강문화장터가 가족단위 나들이객으로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개장식엔 축하공연 및 나주노안초등학교 학생들의 난타공연, 지역 특산물판매장 등 다양한 이벤

영산강문화장터 '복적복적'

트가 마련돼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상반기 영산강문화장터는 6월7일까지 열리며 하반기에는 9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2개월 간 진행된다.

박영춘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

본부 본부장은 “영산강문화장터가 시민들에게 지역의 특산품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고, 가족단위 관람객에게는 독특한 체험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동룡기자 exian@k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권성주·이이순씨 장남 태환(가아동자)군 김정훈(지오메디컬상무이사)·정문화 차녀 유아(엔코테크놀로지코리아)양 = 28일(토) 오후 1시 30분 아이리스웨딩홀 2층 해라홀.

종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무안군분원 정기총회 = 23일(월) 오전 11시 무안읍 5일장 옆 샘물식당 011-475-4989.
▲영광 정씨 광주중친회 창립총회 = 25일(수) 오후 6시 광주 동구 금남로 금강산 010-3642-3399.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담양군분원 정기총회 = 25일(수) 오전 11시 담양읍 백동리 축협회관 4층 011-605-4325.
▲협양 박씨 광주전남중친회(회장 해철) = 27일(금) 오전 11시 북동신협 2층 종친회 사무실 010-2604-2182.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영암군분원 정기총회 = 28일(토) 오전 10시 30분 영암읍 공전본가(공설운동장 옆) 011-618-7047.

알림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 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에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 = 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광주중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 = 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

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학교근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 = 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 = 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비에 한함) 062-365-8228.

모집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힘나는 학습클리닉' = 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힘나는 학

습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62-268-1388.
▲살레시안 가족상담단(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 = 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천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p>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p>	
<p>101호 故서광일 님 (남/63세) 子/子婦: 서현열/박경희, 서인영/이미영 女/婿: 서민숙/최영희 ●발 인: 3월 24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p>	<p>102호 故재봉기 님 (남/58세) 兄弟: 재봉수, 재봉만, 재영희, 재미희 ●발 인: 3월 24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p>
<p>201호 故김중임 님 (여/88세) 子/子婦: 김경수/김영희, 김운수/양미경, 김병수/무순희 女/婿: 김미숙/정준순, 김 미/김중옥 ●발 인: 3월 23일 ●장 지: 화순 남면 선영 ●연락처: 227-4381</p>	<p>301호 故양희천 님 (남/92세) 子/子婦: 양일승/최수남, 양원승/김미영, 양시영/문경자 女/婿: 양강우/박선란, 양시중/김전숙, 양시열/최연화 夫孀: 김영득 ●발 인: 3월 23일 ●장 지: 보성 미령 선영 ●연락처: 227-4382</p>
<p>402호 故백서운 님 (여/98세) 子/子婦: 정성순, 이만중/정정심, 이효중/이유란 女/婿: 이순신/이영득 ●발 인: 3월 24일 ●장 지: 화순 새향리 선영 ●연락처: 227-4314</p>	
<p>孝 마음까지 편안함 금오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p>	
<p>문의 (062)227-4000</p>	

부음

▲양희일씨 별세 청오·오석·선씨 부친 상 = 발인 23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김순례씨 별세 창안·창오·창욱·미옥·미숙씨 모친상 = 발인 23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이형춘씨 별세 창근(주)대광종합건축)·창석·옥순·경화·현하·명화씨 부친상 = 발인 24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6분향소 062-231-8906.
▲최상환씨 별세 중옥(광주우치동물원수의사)씨 부친상 = 발인 24일(화) 그린장례식장 3호실 062-250-4455.